

MOO지 知 청소년 신문

(무) 공무진하게

인천 청소년기자단 12기

제 3 호

청소년들의 이야기
청소년웹진 MOO

• 발행일 : 2012. 9. 14 • 발행인 : 인천광역시장 • 편집 : 김선영(12기 기자) • 발행처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32)440-2844



<http://moo.incheon.go.kr>



초성퀴즈, 넌센스 이벤트 진행중
정답자 선착순 문상



미리 알아보는 뉴스



사 회

- 스쿨폴리스 제도, 한계와 실용성의 차이
- [수원토막살인사건] 민중의 지팡이가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
- 젊은층의 일상이 되어버린 SNS
- 온라인 선거운동,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 화

- 모델들의 반란? - 입지를 넓혀가는 모델
- 지금 이 나이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
-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 '센트럴 파크'
- 모든 장애물을 넘어 선 우정의 위대함 「연을 쫓는 아이」

교 육

- 자기주도적 학습, 이렇게 하면 된다.
- 전공특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를 알아보자!
- 중국어 열풍의 진원지 <인천화교학교>를 가다
- 나는 농구선수대! 송도고 농구부와와의 만남

인터뷰

- 인터뷰 내일을 향해 쏘는 그들, 50kg를 만나다
- 무상급식을 알아보자! (의회에서 본 무상급식)

청소년들의 이야기 청소년웹진 MOO



청소년 웹진 MOO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 잡지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취재하여
또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1년에 창간하였습니다.

청소년기자 활동

- 매월 3개 기사 기고
- 매월 2회 편집회의 참석
- 적극적인 MOO 홍보
- 기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석

청소년 중심의 기사

15명의 청소년 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회, 교육, 문화, 학교 등
다양하고 알찬 기사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 안내

청소년 국제교류 등
인천의 청소년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MOO기자 12기 활동 내역



안녕하십니까!
MOO 12기 부편집장 김윤입니다.
오늘 저와 편집장 정혜림양이
여러분께 MOO 2012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MOO 12기는 14명의 취재기자과 1명의 촬영편집기자, 총 15명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리따운 11명의 여기자들과 듬직한 4명의 남기자들은 매일 청소년 여러분께 재미있고 신선한 기사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MOO 12기의 활동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MOO 12기가 무슨 활동들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 2012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청 장미홀에서 부시장님과 기자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15명의 기자들은 기자
중도 받고 11기 기자 선배님들께서 어떻
게 1년동안 기자단 활동을 해왔는지 배
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뎌 모두 서먹
했지만 다같이 기자로서의 결의를 다지
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2012년 2월, 10기, 11기, 12기 기자들은 모두 함께 인천청소년수련관에서 **동계워크샵**을 가졌
습니다. 반아쓰기, 낱말게임들을 포함한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기자단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
고 선후배간, 친구들간의 우의도 다졌습니다.



●●● 2012년 2월, 15명의 12기 기자들은 **외교사료관과 MBC방송국을 견학**했습니다. 외교와 방송
분야에 관한 지식도 쌓고 현장체험도 했습니다. 평소 방송기자가 되고 싶었던 기자들엔 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겠죠?



●●● 2012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청소년금연마라톤**에서 MOO기자단은 부스운영도 하고 홍보활
동도 했습니다. 사회부, 문화부, 교육부가 각자 제작한 홍보보드와 노트를 통해 기자단을 알렸고 또
12기 기자단이 준비한 도전 앵커체험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 MOO기자들은 인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인천청소년가요제**에서도 부스를 운영
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게임도 진행하면서 기자들과 웹진 MOO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
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가요제에서 MOO기자들은 그룹 50kg를
인터뷰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 2012년 7월에는 **하계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워크샵에서 저희는 바로 이 오프라인 신문을 만다
는 편집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맞춰가며 12기만의 오프라인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작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를 이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는 연초에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확대 실시했다. 이전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아직 '스쿨폴리스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곳은 '배움터 지킴이'가 시행 중이다. 폴리스제도가 일부 지역에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스쿨폴리스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School Police System

스쿨폴리스제도, 한계와 실용성 사이



'스쿨폴리스제도'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원 및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 늘어나면서 2005년 초부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같은 해 대구교육청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한바있다. 그리고 올해 초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제도를 도입·확대 실시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제도 찬성론자들은 학교폭력이 방지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커졌다고 판단,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제도 시행을 찬성한다.

한 기관이 학교폭력에 관한 청소년 학부모 여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의 58.9%, 학부모는 무려 85%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생의 31%가 최근 1~2년간 학교 폭력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학교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27.4%에 그쳤고 절반에 가까운 44.6%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잔인해지고 지능화 되어지는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경찰이 함께한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있다는 점, 교사들의 과도한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점 등을 빌어 제도의 전면 도입을 찬성한다.

그리고 이들은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대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지적하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얻을 효과를 기대한다. 아무래도 학교에 경찰이 있으면 학생들이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경찰이 함께한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있다는 점, 교사들의 과도한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점 등을 빌어 제도의 전면 도입을 찬성한다.

하지만 제도 반대론자들은 찬성론자들과 좀 다르다. 이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직 경찰관배치는 학교폭력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교사들의 자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경찰이 배치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교내에 배치된 폴리스의 눈을 피해 더 심한 학교폭력이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나 만큼 그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도입 반대자들은 현재 '스쿨폴리스제도'이전부터 실시되던 '배움터 지킴이'를 예로 들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지킴이 선생이 학생을 성폭행하는 사례 등과 같은 악영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을 보이며 '스쿨폴리스제도'의 실시를 반대한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만을 쫓아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제도로 인해 배치되는 경찰의 수가 너무 많으며 이에 따른 비

용도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학교폭력은 말이 학교폭력이지, 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등과 같은 교외에서도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교내에서만 활동하는 폴리스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충북에서는 '스쿨폴리스제도'가 시행되었다. 경찰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과잉 개입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스쿨폴리스는 시행이후 한 달간 150건의 상담과 15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된 폴리스들의 한계를 지적한다. 여기저기서 '경찰관 5명이 충북도 전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도내 한 교사는 "교육청에 상주하더라도 1명의 경찰관이 90곳이 넘는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활동 범위가 순회강연, 회의참석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필자가 학생들에게 '스쿨폴리스제도'와 '배움터 지킴이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제도가 있어봤자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리고 한 학생은 "지킴이 선생님이 학교에 계신다. 하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놀렸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지킴이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단속하기보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생활지도에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학생들을 보고하고픈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 마음을 알기능커녕 제도조차 모르고 있으니 교육당국은 무조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학교폭력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요구되겠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악의 숙제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사전,
네이버 이미지, 네이버 지식인, 충청투데이

<12기 기자 이다숨>



[수원토막살인사건] 민중의 지팡이가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2012년 4월 1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남성 오원춘(42살)이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28살의 한국인 여성 회사원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 하고 다음날 오전 2~3시경 다시 한 번 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 112 신고전화 내용 (1일 오후 10시50분58초~10시52분18초)	
접수자 : 112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접수자 : 지동초등학교에서..
신고자 : 예. 여기 못골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신고자 : 못골놀이터 가기 전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접수자 : 누가누가 그러는 거예요?
접수자 : 못골놀이터요?	신고자 : 어떤 아저씨요
신고자 : 예. 못골놀이터 전의 집인데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접수자 :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접수자 : 지동요?	신고자 : 모르는 아저씨예요
신고자 : 예.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접수자 :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신고자 : 저 지금 잠갔어요
접수자 :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조회	접수자 : 문 잠갔어요?
한번만 해볼까요	신고자 : 내가 잠간 아저씨 나간
신고자 : 네	사이에 문을 잠갔어요
접수자 : 저기요. 지금 성폭행당하신다고요?	접수자 :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성폭행당하고 계신다고요?	알려줄래요?
신고자 : 네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
접수자 :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신고자 :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신고자 :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	접수자 :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번만
가기 전..	알려주세요

▶ 민중의 지팡이가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쯤에 피해자는 범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13시간이 지난 다음 날 낮에야 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4일 경찰은 간단한 15초짜리 신고였기 때문에 장소를 알아내

기 힘들었고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이를 패인 지난 5일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전화 시간이 1분 20초 정도였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에게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비교적 정확하게 말하였으며 녹취록은 1분 20초로 억지로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곧 끊어졌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범인 오원춘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도 전화는 6분 넘게 끊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4월 7일에 알려졌습니다. 1분 20초 이후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112센터와 피해자가 대화한 이후 나머지 시간은 피해자가 전화를 떨어뜨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차마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경찰의 10가지 거짓말	
4월4일	
① "정말 간단한 신고였다. 15초였다" →	피해자 전화 전체적으로 7분36초동안 연결
② "신고에는 특정장소 없었다" →	피해자, "지동초에서 못골놀이터 방향 집 안" 신고
③ "상가, 불 커진 주택 바로 탐문조사" →	대부분 상인들, "탐문한 경찰 없었다"
④ "범행장소 인근 00주점에 가봤다" →	주점주인, "새벽4시까지 영업. 경찰은 안 적었다"
⑤ "신고즉시 35명 투입했다" →	신고 직후 3명만 투입, 순차적으로 35명 투입
5일	
⑥ "1분20초간 통화했다" →	경찰 6분16초 통화연결음 미공개
⑦ "112신고 공동청취했다" →	무전망 장애로 순찰차 공청 하지 않아
⑧ "영장없이 가택수사 못했다" →	현행법 긴급 상황에는 수색 가능
8일	
⑨ "형사과장 다음 날 새벽2시 현장도착" →	사건발생 다음날 10시간만에 도착
⑩ "119와 연계해 위치추적했다" →	유가족들에게 "직접 119에 위치추적하라"고 답변
⑪ "CCTV등 찍힌 영상은 아무것도 없다" →	13초 CCTV 영상 내용(7일 동안 은폐)

경찰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 보도 이후 3일 동안 무려 10차례가 넘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의 사진 참조) 또한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보도 이후 각종 인맥을 동원해 취재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만남을 요청하는 등 각종 은폐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축소, 확대, 은폐, 늦장대응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비난이 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 소홀 등의 이유로 관할 서장과 형사 과장을 대기 발령 시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으며 허점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든든한 경찰로서 그들은 너무나도 무능했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심하다 못해 창피한 수준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숨겨놓았던 거짓말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니 국민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말하는 거짓말의 끝은 어딜 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부실대응과 고통 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이미지



<12기 기자 김여주>



젊은층의 일상이 되어버린 SNS

최근들어 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내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와 트위터 사용자가 각각 5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SNS의 영향력도 날로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일례로 공지영 작가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TV조선이 투자했다는 말에 급 호감하락'이라는 말을 언급한 데 대해 영화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제는 SNS가 단지 소수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닌 주류들의 소통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 SNS사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닷컴버블(90년대 중반부터 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던 IT기업이 과대평가된것)이 붕괴한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0년이 채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며 정보 공유와 직접민주정치의 참여 등의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들 간의 소통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민주화를 도왔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젊은층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SNS를 인식하고 젊은층의 표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는 법. SNS의 주 이용자는 주로 10대~20대로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10대~20대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다. 따라서 SNS가 한 곳으로 치우친 생각을 키우기에 최적의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나 트위터같은 SNS에서는 이른바 '1:9:90 법칙'이라는 가설이 존재한다. 1%가 정보를 생성하고, 9%가 정보를 나르고 90%가 정보를 수용한다는 설이다. 이는 과장해서 말한다면 1%에 의해 나머지 대다수의 생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편향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군중심리에 의하여, 혹은 특정한 생각에 지속적인 노출이 가해져 생각이 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이외에 잘못된 정보로 인터넷 군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예를 들어 한미 FTA 당시에는 SNS를 중심으로 수도·전기요금의 가격 인상, 광우병 쇠고기, 맹장수술비용으로 유명한 의료비용 증가 등의 괴담이 퍼지기도 하였다. 또한 이효리, 강호동 등의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사망설이 퍼져 당사자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SNS. 이제는 20대 뿐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정보 수용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른사회의 신생아로서 사회에 발을 들이는 중대한 첫걸음일 수 있지만 편향과 왜곡이 존재하는 SNS세계를 조리 있게 분별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12기 기자 박준영〉



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선거운동, 어떻게 달라지나요?

10.26 재보궐 선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당시, 방송인 김제동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공개해 팔로어들에게 투표 독려의 글을 남겼다. 그런데 김제동씨의 이런 행동이 공직선거법(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에 위반된다며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김제동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도가니'의 공지영작가도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 독려의 글을 올릴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4.11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으로 정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온라인으로 선거와 관련된 정보가 오고 가면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고 국민이 주권을 쥔 선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다면 온라인 선거운동, 어떻게 달라질까?

〈허용되는 것〉

1. 지지자 측면

- ① 온라인상에 투표 당일 투표 독려
- ② 투표 당일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 표현하기
- ③ 투표 당일 투표소 안 인증샷/후보자 포스터 옆 인증샷 가능
- ④ 투표 후 본인이 투표한 후보 밝히는 행위

2. 정치인 측면

- ① 투표 당일 지지를 호소
- ②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 지지를 호소
- ③ 지지선언 동영상 또는 인터넷 광고 올리기 (ex. 유튜브)

〈금지되는 것〉

- ① 온라인에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올리는 행위
- ② 다른 유권자에게 그 사람이 뽑은 후보를 물어보는 행위
- ③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비록 청소년들에게 선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잘 이끌어갈지 생각해 보면서 한국 정치에 관심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khees73?Redirect=Log&logNo=50128580569>
http://cafe.naver.com/allteeth.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4

〈12기 기자 윤서빈〉



‘센트럴파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미국 뉴욕의 유명한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도 뉴욕의 공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뽁뽁한 빌딩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심 속에서 보는 멋진 공원.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이번에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센트럴파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

센트럴파크!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

‘센트럴파크’!



... 송도에 가려면 인천지하철을 타고 센트럴파크 역에 내려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는데요. 4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유명한 송도의 명물인 ‘트라이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이라 더욱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세 개를 뜻하는 트리플(triple)과 그릇을 뜻하는 볼(bowl)의 합성어인 트라이볼은 이름 그대로 3개의 사발모양을 한 건물이 곡선으로 이어져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이벤트 홀과 다목적홀, 디지털라이브리 등으로 꾸며진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트라이볼은 그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CF 촬영장소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이니 인공호수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해수공원인데 물이 더러우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텐데요. 센트럴파크의 인공호수 수질관리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기계가 한다고 합니다. 이 기계가 직접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하여 수질이상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있다고 합니다.



...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면 많은걸 보게 되는데요. 저는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다 공원 안에 있는 공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원 안에는 장독대들과 향아리로 장식된 분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미나게 생긴 조형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 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정도에 있는 ‘센트럴파크’의 입구 모습입니다. 딱히 공원이라 입구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공원 중간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는 바닷물을 끌어들이 만들어 낸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입니다. 송도 신도시 중심부에 41만여㎡로 조성되어있습니다.



... 옆으로 둘러 싸여있는 길인데요. 돌로 길이 만들어져있어 더욱 친환경 적으로 보입니다. 이 길을 꼭 따라 걷게 되면 센트럴파크의 모든 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저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먼저 생각하시나요? 공중전화가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어? 공원 중심에 왜 공중전화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숲속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중전화박스 속에 책들이 꽂혀있더군요. 숲속에서 작은 도서관을 보게 된 것 같아 친숙함과 새로운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 센트럴파크에 들어서게 되면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모습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계획 도시답게 송도 신도시의 도로와 공원 등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송도 신도시 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 이곳은 수상택시를 타는 곳인데요. 센트럴파크에 있는 인공호수에서 수상택시를 타게 되면 자연과 인공미가 아름답게 조화된 센트럴파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 할 수 있는데요. 미추홀호로 이름이 지정된 수상택시는 왕복 3.6km를 운행하는데 약 25~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4000원, 군인과 청소년은 3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 공원을 돌아다녀보면 중간 중간 화장실을 보게 되는데요. 센트럴파크의 화장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두다 현대식으로 지은것이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전통미를 갖춘 건물들이 공원 중간 중간에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더욱 멋진 공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어린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놀이터’가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미끄럼틀이나, 그네, 시소가 있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제일 중심으로 두고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환경을 해하는 물건은 있지 않았습니 다. ‘어린이 정원’에는 돌탑과 다리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뛰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재미있어 보입니다.



... 센트럴파크를 걷게되다보면 정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빌딩들 사이에 있는 정자들을 상상해 보셨나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높은 빌딩과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현대식으로 완성된 빌딩들 사이에 있는 고전미를 내뿜고 있는 정자들이 시선을 끄는 것 같습니다.



... 공원을 돌아다니다 정말 아쉬웠던 점은 공원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 다. 송도 신도시인 만큼 외국인들도 관광하러 많이 오는 공간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공원 중간 중간에 쓰레기통을 배치한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손에 들고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송도 센트럴파크를 알아보았는데요. 공부, 학원, 직장에 지친 몸을 달래주기위해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가보시는건 어떠신가요? 빌딩 속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이런 공원이 도심 중심에 더욱더 많아 졌으면 하는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2기 기자 성치훈>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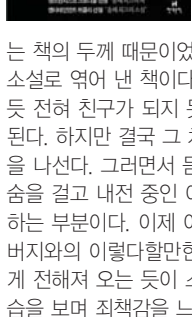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선 우정의 위대함 「연을 쫓는 아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여러 시기를 지나게 된다.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장차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며 인생을 선택한다.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미래에 있을 많은 일들과 그것을 결정할 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듯 중요한 청소년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단어가 있다. 친구. 그것은 친구이다. 또한 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정이다. 여기 두 소년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우정’을 그린 책이 한 권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지역에서 싹트는 순수. “당신을 위해서라면 천 번이라도!”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는 한동안 읽을 엄두가 나질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낯선 책 속의 배경과 무시할 수 없는 책의 두께 때문이었다.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의 슬프고도 굴곡진 역사를 한 소년의 편에 서서 잃어버린 순수를 되찾아 가는 한 편의 성장 소설로 엮어 낸 책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미르와 하산으로, 아미르는 파슈툰인이며 부자로 태어나며 하산은 하자라인으로 태어났다. 이렇듯 전혀 친구가 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이 둘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신분차별과 종교를 뛰어넘어 우정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한 채, 그들은 전쟁 속에서 헤어지고 만다. 한참 뒤에 시간이 흐른 후, 아미르는 하산을 찾으러 길을 나선다. 그러면서 듣게 된 절망적인 소식, 하산은 이미 죽고 없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대신 아미르는 하산의 남겨진 아들인 소랍을 목숨을 걸고 내전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탈출을 한다.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라 꼽을 수 있는 장면은 소랍과 아미르가 단 둘이서 대화를 하는 부분이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소랍의 말이 어찌나 가슴아프게 들리던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일까, 아니면 아버지와의 이렇다할만한 행복했던 추억이 없어서일지, 그 힘들었던 아프가니스탄 속에서 아버지 없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져 오는 듯이 소랍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소랍을 통해 지난날 하산에게 저질렀던 죄를 참회하고 싶었던 아미르는 이러한 소랍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연’을 쫓는 아이, 그 속의 숨은 의미

이 책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연’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작가는 이 연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연’이기도 하지만, ‘오직 연 줄에만 위태롭게 의지해야 하는 연’이기도 하다. 그러한 불안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또 다른 ‘연’의 의미는 마음과 마음을 순수하게 엮어주는 그러한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하산은 자신이 해를 입으면서까지 연을 지키고자 하였다. 또 아미르와 하산은 연 때문에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또 멀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연 덕분에 소랍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렇기에 아미르와 소랍이 함께 연을 날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소랍은 지금 자신에게 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아미르는 지난날의 순수를 되찾지 않았을까. 무언가 새로운 전개와 방식의 소설을 원한다면, 또 가슴 찡한 소설, 눈물을 주르륵 하고 흘릴 수 있는 소설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이 책 한 권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아마도 우리들의 뇌리 속에 깊게 새겨져 청소년기의 이상향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12기 기자 나예진>





자기주도적 학습, 이렇게 하면 된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에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가 ‘입학사정관제 대비 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교육 과목으로는 독서·논술·구술이 52.7%로 1위를 차지했고 면접이 43.1%, 내신 대비 교과목이 42.8%로 그 뒤를 이었다.

사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내신 시험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부터 사교육의 도움 없이 내신평가를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국어]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은 대체로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신의 학교에서 비문학 지문의 범위가 없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비문학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

하지만 특정 비문학 문제집을 수업 교재로 사용하여 그 지문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면 좋은 공부 방법이 있다. 시험 전에 읽어 보았던 지문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지문을 볼 때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단어 하나의 차이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서 틀릴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비문학 해답지를 함께 보면서 틀린 선택지는 무엇인 틀렸는지, 옳은 답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자기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문학은 비문학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과목이다. 또 문학은 각자 공부방법이 너무 달라서 사실 공부 방법을 소개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다.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자면 디딤돌 문학 교과서와 같이 문학작품들을 많이 모아 놓은 문제집을 함께 보는 것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 외에 별도의 지문이 종종 출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습서나 평가문제집 이외에도 최대한 많은 문제집을 접해서 문학작품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어]

영어 내신평가에서는 모의고사와 달리 이전에 한 번씩 접해보았던 지문을 접하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어 내신평가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사소한 문법사항들이나 단어가 시험문제로 출제되어 학생들을 당혹감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 내신 공부를 할 때에는 우선 본문이나 지문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완벽하게 외운 후에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 후에는 지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떤 문법사항들이 숨어있는지,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면 영어 내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수학]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수학은 많은 문제집을 풀수록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력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서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최대한 많은 문제집을 풀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수학 개념을 처음 접할 때에는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수학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개념원리’나 ‘수학의 정석’과 같은 수학 개념서는 문제 수가 적어서 응용력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집보다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모아 둔 유형편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각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성격과 수준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모두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12기 기자 이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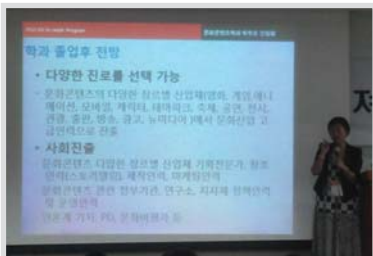


2012 KU In-reach Program (전공특강)

<문화콘텐츠학과>를 알아보자!

2012년 6월 2일, 건국대학교에서는 고교-대학 연계활동 KU In-reach Program 전공특강을 열었다. 전국 고교생 약 2500명이 참가한 이번 전공체험과 전공특강 프로그램은 환경공학과, 분자생명공학과, 교육공학과, 행정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철학과, 수의예과,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문화콘텐츠학과와 전공특강 프로그램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직접 들었던 강의를 고등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스토리텔링의 매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전윤경 교수님의 학과 소개로 시작된 전공특강은 시작되었다.



WHAT IS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문화콘텐츠학과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학과라고 할 수 있었다. 기술이 아닌 인문학에 가까우며 졸업 후에 방송PD, 방송작가, 음반기획자, 게임기획자, 출판기획자, 애니메이션 기획자, 애니메이션 작가, 영화PD, 영화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과였다. 생각과 말을 필요로 하는 과가 바로 문화콘텐츠 학과였다.

STORYTELLING?

본격적으로 전공특강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스토리텔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스토리텔링은 간단하게는 듣기와 말하기라고 할 수 있었다. 재미와 의미가 더해져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그 예시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이 소개되었다. 세일러문의 영상을 보여주며 교수님께서는 세일러문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했

다. 세일러문은 재미와 중독성이 있는 것 뿐만아니라 의미까지 갖췄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이 된 것이었다.



HIGHLIGHT!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박병의 판타스틱베이비 MV와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의 공통점을 알아내고 박병의 MV에서 찾아낸 새로운 의미였다. 아키라라는 일본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의 반항기를 보여주며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붕괴시키는 사회를 보여준다. 아키라의 주인공은 몸이 변형 되면서 내부의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몸이 점차 변형되어 괴물로 변하고 도교를 파괴하는 모습에서 주인공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기형아의 모습이었고, 억압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반항을 하며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사회를 파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아키라의 주인공의 팔이 점차 변형되는 모습은 박병의 판타스틱 베이비MV의 첫 장면에서 지 드래곤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과 매우 흡사했고, 아키라를 실사판 한 것이 판타스틱 베이비라는 학설도 있다고 소개되었다. 일본 문화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애니 “아키라”의 문화적인 가치는 바로 일본인들의 꿈도 함께 담겨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다음으로 소개된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에반게리온이었다. 아키라와 같은 괴물이 나오지만 에반게리온에서는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다. 생체로봇이라는 소재로 엄마의 유전자가 폭발하며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은 모성애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뉴욕에서 한 매장의 한 section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 내에서는 에반게리온 동아리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에반게리온과 마찬가지로 모성애를 볼 수 있는 영화는 바로 에일리언 이다. 영화 에일리언은 개봉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 색다른 상상력과 그 잔인함에 현실에서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시즌4까지 나오는 파위를 보여줬다.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모성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일차적으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에일리언은 사람의 몸에 기생해야만 번식할 수 있는 생명체였다. 에일리언의 모체는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인간들과 싸울 수 밖에 없으며 살기 위해 인간들을 죽여야만 한다. 영화 에일리언은 잔인함 속에 모성애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또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벤츠와 BMW의 광고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화콘텐츠 학과에 대한 전공특강은 끝이 났다.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 문화콘텐츠학과에 관한 밝은 전망과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지금 건국대학교 홈페이지(culturecontents.konkuk.ac.kr)에 접속해보는 건 어떨까?

사진출처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2기 기자 정혜림>



중국어 열풍의 진원지 ‘인천화교학교’를 가다!

인천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차이나타운이 있다.

중국 문화가 묻어있는 상점들과 거리를 지나면 주황색 지붕 건물이나온다. 자유공원 중턱에 110년이 넘도록 자리를 잡고 있는 인천화교 학교가 있다.

화교학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싸여져 있는 학교다. 굳게 닫혀 있는 문, 삼국지의 다양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 담장 넘어 화교학교는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교다.

오늘, 그 문을 활짝 열어 보았다.

인천화교학교는 말 그대로 화교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1902년 5월에 설립한 학교이다.

처음에는 인천에 3개의 본교(1946년에 설립된 주안본교, 1951년에 설립된 용현본교, 1951년에 설립된 부평본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천본교 하나만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화교소학교(초등학교)는 많지만 중, 고등학교가 있는 화교 학교는 단 4곳이다.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인천이다.

인천화교학교는 1학급당 한 반으로 각 반마다 인원수는 다르지만 대개 30~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 학생수는 많이 줄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어 열풍과 중국에 유학 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중도입국자들 때문에 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다.

화교학교의 한국학생 수는 예전에는 한 반에 1~2명 정도 이었지만 10여년 전부터 국적이 한국인 중도입국자학생들을 포함한 한국학생 수가 30~40% 정도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의 방침으로 한국 학생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다.

한국학생이 화교소학교에 입학하려면 소학교 1학년 수업이 중국어로 진행되므로 일단 화교소학교부속유치원의 2년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인 언어를 익혀야 한다. 그래야 화교소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한국학생과 화교인 중국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차가 큼급하다.



당연히 중국학생이 중국어를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다. 이민 3~4세대에 이르는 중국학생들도 한국에서 태어나 그 환경에서 자랐으므로 중국어에 서툰 경우가 많다.

그래서 4,5학년에 올라가면 중국어 실력은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라고 한다.

화교학생들을 위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도 진행한다. 학교에서는 5학년때부터 주 2회 동안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시간은 기초부터 한글 단편소설까지 다양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교학생들은 본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월 말에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대만 대학시험을 보고 대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의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다. 한국학생들이 한국대학을 가려면 정식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한다.

화교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 밖에 없어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분위기가. 요즘 한국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에 전학 가지 않는 이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같이 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박소영 학생은 "우리학교는 서로가 워낙 잘알기 때문에 학생간 갈등이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화교학교는 이러한 인성 교육과 화교학교의 특색인 중국어 수업이 가장 큰 매력이다.

많은 한국학생들이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는 한국학교로 옮기기도 한다.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학교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학생들은 한국대학에 진학할 때 외국인 특례로 입학하기 때문에 진학률이 높다. 또 대만이나 중국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상당수다.

그래서 전국 화교학교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고 한다.

이 학교의 교무주임인 왕조금 선생님은 "학생들이 본교를 졸업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인천화교학교를 빛내 줄 때가 가장 보람 있다"면서 "화교학교가 중국학생뿐만 아니라 한국학생들이 어울려 공부하는 국제학교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화교들의 교육과 정신을 이어주는 중국인 학교로 국한됐던 화교학교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중국어 교육의 메카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교류가 폭넓게 펼쳐지면서 인천화교학교의 미래 가치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仁川華僑學校,加油! (인천화교학교, 파이팅!)

〈12기 기자 김 윤〉



송도고 농구부와의 만남 나는 농구선수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학교 인천 송도고의 농구부 선수들을 만나 보고 왔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졌는데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송도고 농구부 선수들. 그럼 송도고 농구부 정인덕(송도고 3학년)주장과 최호 코치님과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12기 기자 정지현〉



::정인덕 주장과의 인터뷰

정지현기자(Q) : 인천 송도고 농구부는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인천 송도고 농구부에 대하여 소개해주세요.

정인덕주장(A) :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송도고의 농구부이며 또한 현재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많은 스타를 배출해 낸 농구부팀이고 좋은 선수들이 현재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큰 농구부팀입니다.

Q : 그럼 송도고 농구부만의 특징, 송도고 농구부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우선 송도고 농구부의 특징과 장점은 빠른 농구, 스피드를 앞세운 속공 능력입니다. 우선 농구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그 점을 앞세워 상대팀을 유인한 뒤에 저희만의 플레이로 농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빠른 스피드가 송도고의 장점이자 특징인 것 같아요.

Q : 앞서서도 말했듯이 송도고에는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요. 그래서 송도고 앞에는 '가드의 산실'이라는 말이 붙여지곤 하죠. 이러한 유명한 선배님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송도고 출신 선수들 : 강동희, 김승현, 김선형, 이충희, 유희형, 정덕화, 김동광 등등 수없이 많아요!

A : 선배님들을 보며 많은 자극도 되고 희망도 꿈꾸고, 선배님들이 워낙 잘하시고 인정받으셨으니깐 저희도 열심히 농구해서 학교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하고 저희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선배님들이 다들 잘되셔서 좋은 것 같아요.



Q : 송도고는 시합도 대회도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을 상대할 것 같아요. 또한 송도고는 농구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송도고를 라이벌로 지목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송도고가 생각하는 라이벌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A : 같은 인천에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입니다. 같은 인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할 일이 종종 있어요. 물론 제물포 고등학교도 다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굳이 라이벌을 꼽으려면 제물포 고등학교 인 것 같아요.

Q :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2012년 송도고 농구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우선 4월에 연맹 회장기 대회가 있고 7~8월 사이에 제물포 고등학교와 전국체전을 두고 평가전이있어요.

Q : 농구 선수를 꿈꾸기에 인천송도고등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송도고 농구부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요?

A : 우선 농구를 재밌어 하고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경기를 나가고 농구 선수라는 책임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Q :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인덕주장님과 같이 또 저와 같이 꿈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 : 모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 자신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 코치님과의 인터뷰

정지현기자(Q) : 송도고는 워낙 농구로 유명해서 코치를 맡는다고 하셨을 때 좀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최호 코치님(A) : 솔직히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내가 그냥 아이들을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Q : 송도고 농구부 친구들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A :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저희는 아이들이 자아수롭게 농구하도록, 즐기면서 농구하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모두 착하고 성실하게 농구하는 친구들입니다.

Q : 주장은 송도고의 장점이 빠른 스피드로 인한 공격이라고 했는데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송도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예전부터 송도고는 개인 기술이 뛰어났어요.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농구를 하다 보니 농구 기술에 대한 창의성도 뛰어나고요. 요즘에 와서는 팀 위주의 훈련 또한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력을 통한 속공이 가장 뛰어난 송도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Q : 혈기왕성한 10대 소년들이니 지도하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A : 아니요. 저희 농구부 친구들은 너무나도 순둥이라 오히려 걱정입니다. 운동선수는 원래 좀 터프하고 좀 그래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Q : 마지막으로 송도고 농구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A :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힘들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힘들어도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농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일을 향해 쏘는 그들, 50kg을 만나다!

위대한 탄생 시즌2를 보신 분이라면 모두 50kg를 알고 계실 텐데요! 콤플렉스를 여과 없이 드러내 재치 넘치는 팀명에 걸맞게 익살맞고 즐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듀오, 50kg를 만나봤습니다!

Q. 청소년 가요제에 초대가수로 오셨는데요,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인천시도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데 재미있게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니가 다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엠카운트다운'이라는 케이블 가요 프로그램에서 며칠 전에 멋지게 데뷔하셨는데요. 지상파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었다는 평까지 받고 있는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아직 한계까지 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가요. 진짜 한계를 넘기 위해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50kg의 정식 데뷔는 음악프로그램이 아니라 말도 있는데요. MBC의 간판 드라마인 '빛과 그림자'에서 '샤니보이즈'로 데뷔하셨는데 연기 도전! 어떠셨나요?

A. 굉장히 재미있었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드라마로 데뷔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Q. 이번에는 50kg의 학창시절을 알아보나요? 학창시절부터 반의 분위기를 확 띄워주는 분위기메이커셨을 것 같은데, 50kg는 어떤 학생들이었나요?

A. (이찬영) 진짜 까부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기간에만 공부하고 모든 시간은 저의 시간이었을 정도?(웃음) 밤에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저 때문에 학교에 세품이 설치될 정도였죠.

(박민) 저도 엄청 까불었어요. 하수구도 많이 터뜨리고 선생님들 차에 기스도 몇 번 내고... 장난이 심했죠.(웃음) 선생님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였어요.

Q. 50kg를 결성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A. 저희 사실 친한 대학교 선배배예요. 친한 선배배 사이로 지내다가 위대한 탄생이라는 기회를 보고 '한 번 의기투합해서 나가보자!'하고 팀을 결성하게 됐죠.

Q. 위대한 탄생을 촬영하시면서 기뻐던 순간도 있으셨을 거고 그만큼 아쉬웠던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순간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이찬영) 가장 기뻐할 땐 처음에 세 심사위원 분들께 모두 왕관을 받고 합격했을 때였어요. 제일 아쉬웠던 순간은 저희가 골든티켓을 '아니 벌써'라는 곡으로 받았던 무대였어요.

(박민) 골든티켓은 받았지만 준비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래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한 게 참 아쉬웠죠.

Q. 촬영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무대를 공연하셨는데 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였나요?

A. 모든 무대가 애착이 가지만 '노란 샤쓰를 입은 사나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 두 무대죠.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멘토스쿨에서 처음으로 부른 노래였고 가장 이슈가 된 동시에 가장 많이 혼란 곡이기도 해요. 워낙 좋은 곡이다 보니 망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었던 곡이었죠.

'노란 샤쓰를 입은 사나이'는 지금의 50kg를 가장 많이 알아봐주시는 곡이에요. 지금 팬클럽 색도 노란색일 정도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Q. 독설가 윤일상 멘토님께 멘토링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A. (박민) 멘토스쿨 첫 순간에 멘티 네 명이 어찌보면 다 라이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난 순간에 멘토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넷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서로 함께 도우면서 함께 음악하자.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첫 순

간부터 정석이형, 샘 카터, 예림이랑은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었죠. 그래서 서로 응원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이찬영) 저는 "작곡가는 하루도 작곡을 하지 않으면 작곡가가 아니다. 매일 누구한테도 열심히 하는 걸론 지지 마라."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윤일상 형님이 매일 작곡을 하시거든요. 최고의 자리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Q. 위대한 탄생에서 TOP4까지 올라갔지만 예선부터 '50kg는 탈락 0순위' 이런 말들이 있었죠.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A.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도 저희가 탈락 0순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 무대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섰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초조해하지 않고 무대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위대한 탄생 인터뷰에서 박민 씨는 열등감이 심해서 스스로 가수의 꿈을 숨겨왔다고 밝혔었는데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열등감도 더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Q. 앞으로 노래를 통해 50kg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A.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노래를 듣고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심거리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더위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저희 노래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즐거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Q.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여쭙 봐도 될까요?

A. 연기뿐만 아니라 라디오, 음악 방송, 무대... 여러 방면에서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관객 분들과 호흡하고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네 오빠처럼 친근하게 저희를 대해주시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12기 기자 이유리〉



무상급식을 알아보자!

의회에서 본 무상급식

무상급식.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인천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무상급식.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장 이한구 의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1 초·중등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1 무상급식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즉 돈을 내지 않아도 급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변에도 있듯이

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지원이 나오잖아요. 학생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낙인을 정부가 찍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아이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따라서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낙인을 방지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Q.2 강남지역에서는 세금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2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소동은 시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급식과는 차이가 있고 또 다른 구, 예를 들자면 강북구와 같은 지역의 아이들과 같은 밥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5000원의 급식비를 내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겠다는 것이었어요. 싼 걸 못 먹이겠다는 거죠(웃음)

Q.3 인천에서는 무상급식이 실현되는데 걸림돌이 없었나요?

A.3 인천에서는 걸림돌이 없었어요. 인천시장님과 구청장님이 같은 공약을 내걸고 나오셨기 때문에 곧바로 추진이 되었죠.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을 시에서 40%를 감당하고 구청에서 30%를 감당하고 또 교육청에서 30%를 감당하고 있어요.

Q.4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얻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A.4 아까도 말했듯이 학생들 간의 낙인효과를 없앨 수 있죠. 하

루 한 끼 식사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 이예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생산하고 인천시에서 소비를 하는 지산자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농민들과 농업 농촌을 지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농경문화를 들 수 있어요. 기자 분과 같은 나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의 분들은 농촌에서 자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농경부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활성화 될수록 농경지가 확대되고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향수에 대한 일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봐요. 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하나를 지켜내었다고 볼 수 있어요.

Q.5 아무래도 무상이다 보니까 식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5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웃음). 현재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액수는 약 572억 이예요. 상상하기 힘든 액수죠?(웃음)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2011년도에 도시형 학교를 봅시다. 140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일인당 평균 급식비가 1839원이에요. 이에 반해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일인당 급식 지원비는 1970원이에요. 이런 결과를 보듯이 더 좋은 음식을 사서 먹이지는 못할망정 식품의 질을 떨어트리지는 않아요. 무상급식이라서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이예요(웃음).

Q.6 인천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6 앞에서 말하였듯이 친환경이란 시에서 생산하는 무농약 식품을 인천시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먹일 수 있고 우리 농민들과 농지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7 친환경 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식품들보다 빨리 상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있으신가요?

A.7 친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패는 피할 수 없죠. 적당만 금만 사서 그날 소비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음식 구매라고 생각해요. 학교 급식 식료품 조달은 운송과정에서의 차이를 내고 있어요. 보통의 운송과정은 3~6번까지의 운송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친환경 식품을 배달하는 데는 운송과정을 반 이상 줄여서 배달을 해요. 따라서 식품이 보다 신선할 수 있죠.

Q.8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이 추진 중인지 알고 싶고, 정책이 추진단계에 있다면 어디까지가 목표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A.8 일단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같은 가격대에 비해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인천시의 재정이 아시안 게임을 위한 경기장 설립과 인천 지하철 1.2 단계를 함께 진행하느라 악화되는 바람에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밖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요. 그러나 머지않아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봐요.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이 끝나고 상황을 봐야겠지만 곧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 이예요. 이제 국가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바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Q.9 주말이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9 아니예요. 다음에 기자동료들 중에서 저희 관찰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학생의 신분이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자생활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신 이한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12기 기자 이호연〉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보는 **MOO** 영상기사

청소년 웹진

2.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드림콘서트

매년 수많은 가수들이 함께하는 드림 콘서트!! 1995년부터 시작된 드림콘서트는 현재 2012년 까지 매년 5월마다 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서 무료로 개최되었다. 올해 2012년 드림콘서트는 '사랑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1. 조선시대의 청와대 경복궁 그 속으로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역사 경복궁. 경회루 등 수많은 궁들과 함께 조선시대 궁의 삶을 엿 볼 수 있는 곳. 조선시대의 청와대 경복궁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지 엿보아 보자.

4. 시간이 멈춘 그 곳 - 북촌한옥마을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 북촌. 많은 사진가들과 외국인들이 꼭 들리는 서울 명소 중 하나 인 북촌. 거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북촌. 북촌의 인기 비결과 매력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자.

3. 세계인의 축제 - 여수세계엑스포

2012년 핫이슈 여수엑스포!! 여수엑스포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아쿠아리움과 한국관 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어 설 틈 없이 보기 바쁘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여수엑스포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사내에 위치한 청소년들만의 새로운 아지트

인천청소년문화센터
다락
(多樂)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마치 친구집을 드나들듯 편안하면서도, 청소년들만의 공간 인 만큼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다름 아닌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메카, 인천청소년문화센터 다락 '多樂'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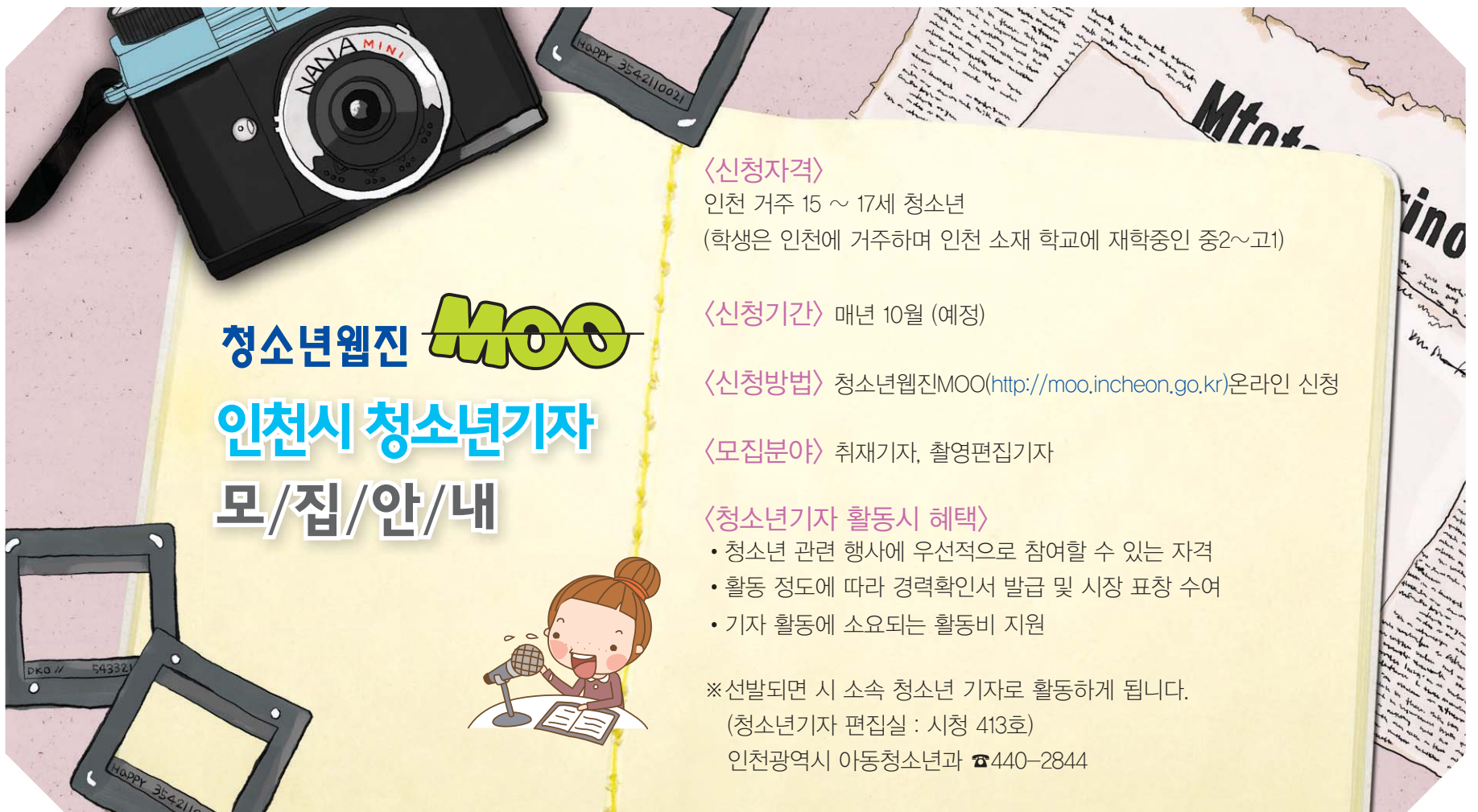
친구야 신나게 놀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즐기며 꿈꾸는 청소년 놀이터. 청소년 가출율이 급증할수 있는 여름 때로는 친구처럼 즐겁고 때로는 가족처럼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다락'이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락에서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하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수다공방, 기념일날 친구에게 줄 쿠키, 초콜릿, 케익 등을 만들 수 있는 파티쉐룸, 스포츠·댄스 등의 각종 Wii게임과 댄스연습을 할 수 있는 댄스연습실, 드럼셋트와 피아노가 준비되어있는 밴드연습실, 풍물악기가 준비되어있는 전통방과 청소년들의 소모임 공간 현대방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요일은 저녁6시까지 청소년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청소년들이 다락방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즐거움이 많은 곳.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있는 '다락'이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청소년웹진 MOO

인천시 청소년기자 모/집/안/내

〈신청자격〉
인천 거주 15 ~ 17세 청소년
(학생은 인천에 거주하며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중2~고1)

〈신청기간〉 매년 10월 (예정)

〈신청방법〉 청소년웹진MOO(<http://moo.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모집분야〉 취재기자, 촬영편집기자

〈청소년기자 활동시 혜택〉

- 청소년 관련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 활동 정도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 및 시장 표창 수여
- 기자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지원

※선발되면 시 소속 청소년 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자 편집실 : 시청 413호)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 ☎440-2844

EVENT

초성퀴즈, 넌센스를 맞춰 메일로 보내주세요.

초성퀴즈

QUIZ 01.

□○△○△○△○

피아노를 소재로 다룬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QUIZ 02.

ㅋㄹㅇ

남한과 북한의 뜨거운 민족애. 하지원, 배두나 주연.

QUIZ 03.

ㄱㅈㅇㄱㄹ

우리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 이었다.

QUIZ 04.

ㄷㅋㄹㅇㅈ ㄹㅇㅈ

최근 개봉한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히어로 액션.

QUIZ 05.

ㄱㅈㅇㅈㄷ

코믹,감동,재미 3요소가 두루 갖춘 3대 이야기!

QUIZ 06.

ML

'그 시절, 그 때' 즐거웠던 지난 날, 친구들 그리고 춤.

QUIZ 07.

ㅇㄷㅇ

교사와 제자와의 코믹버라이어티. 암마 ㄷㅇㄷ!

QUIZ 08.

ㅇㅈㅈㅈ

전 세계 모든 영웅 총 출동!

QUIZ 09.

ㄷㄱㄹ

가슴 아픈 현실. 마음으로 듣는 소리.

QUIZ 10.

ㄱㅇ

한강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흥행작.

넌센스퀴즈

1. 고래의 웃음소리는?

2. 꿀등이 2등을 수월하면?

3. 두목이 한바퀴 돌면?

4. 동생이 형을 너무 좋아하면?

5. 클래지라이 호란이 아프면?

6. '미소'의 반대말은?

7. 텔레토비가 차린 안경점 이름은?

8.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4자로 줄이면?

9. 암탉은 어느 집에서 시집 왔을까?

10. 바나나 우유가 웃으면?

○ 상 품 : 선착순으로 정답을 맞힌 청소년 60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1 ~ 30등 문화상품권 5천원 + MOO 노트

31 ~ 60등 MOO 노트 + MOO 여행용 티슈

○ 당첨발표 : 2012. 11. 22(목), 청소년웹진MOO 공지사항 게재
※ 정답자가 60명 되면 바로 발표 예정

○ 상품배송 : 메일에 적은 주소로 배송

○ 유의사항 : • 참가자격은 청소년만 되므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MOO 이벤트 및 홍보에만 활용합니다.

☆ 문의 : 아동청소년과 032-440-2844, yjsuk1@korea.kr

○ 행사기간 : 2012. 9. 17 ~ 11. 18 (2개월)

○ 참가자격 : 대한민국 9세 ~ 19세 청소년

○ 참여방법 : 넌센스 & 초성퀴즈 정답과 함께 인적사항을
메일(yjsuk1@korea.kr)로 보내주세요.

-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상품 받을 수 있는 곳), 이메일



12기 MOO 기자 활동 후기

성 치 훈

청소년웹진 MOO. 이 기자단에 들어온것 자체가 나에게는 정말 많은 가치가 생긴 것 같다. 기사를 쓰며 좋은 경험과, 좋은 정보를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MOO 기자들이 함께 협동하고, 어울리고, 지내면서 얻는것들이 더욱 값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MOO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선 영

2012년 고2가 되면서 같이 시작한 웹진 MOO에 청소년 기자생활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미래의 꿈을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보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주었고, 생전 처음본 14명의 친구들과 정숙쌤과 함께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어울리며 가족이 되어갈 수 있는 축복도 주었다. 또 무엇보다 부족한 나에게 오프라인 신문을 맡게 해주는 영광도 주어 감사하다. 항상 고생 많이하고 고마운 편집장 해림이, 그리고 언제나 편집장 도와 잘 이끌어준 내사랑 부편 윤이, 부러운 총무 진경이 그리고 사랑하는 고2 쌤 유리, 여주, 광진이, 준영이. 고마운 동생들 지현이, 유진이, 호연이, 다솜이, 서빈이, 마지막으로 막내 예진이, 치훈이까지/ 그들과 함께해서 기뻐고 여러가지 훈훈한 추억들을 얻고 갈수있어 너무 좋다. 웹진MOO가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홍보되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많은 깨달음과 좋은 추억들을 얻고 갈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P.S. MOO 12기 사랑한다.♡

이 호 연

일년이라는 세월은 그 어떤 것보다도 느리게 지나갈 줄로만 알았다. 같은 기수들과 기사를 쓰고 서로 도움을 주며 한 달에 1~2번씩 만나다 보니 그 느리고 더딘 세월이 이렇게나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워크숍을 떠나 하루종일 회의를 하더라도 그들이 있어 즐거웠고 함께 있다는 사실에 피곤함마저 느끼지 못하였다. 청소년 웹진 MOO는 기사작성에 대한 지식과 기자라는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라는 중요한 생각을 나에게 남겨준 것 같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고 내가 힘들면 남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심어준 MOO. 인생에서의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에 눈을 뜨게 해준 MOO. 다음 기수들과 함께 할 수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13기들도 단순히 직업체취만이 아닌,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을 얻어 가기를 바란다. 언제나 함께 뭉쳤던 12기. 즐거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들이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를 것이다.

윤 서 빈

덜덜 떨면서 면접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년이 거의 지나 오프라인 신문을 펴낼 시기까지 왔다. 편집회의에 참여하고 스스로 쓴 기사가 홈페이지에 오를 때마다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청소년 웹진 MOO로부터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어가서 정말 행복하다. 1년 동안 잘 이끌어주신 유정숙 선생님, 12기 언니, 오빠, 친구들, 동생들과 선배님들 모두모두에게 감사하고 청소년 웹진 MOO 덕분에 행복한 2012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웹진 MOO, 화이팅!!!

김 여 주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MOO 포스터를 보고 호기심으로 한 신청이 운 좋게도 합격으로 이어졌다. 합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멍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기자활동이 아쉽게도 너무 빨리 지나버리고 슬슬 기자단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기자단을 하면서 망설이고 고민했던 불완전한 진로가 확고해지는 기회가 되었고 좋은 경험과 실력을 쌓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더 일찍 MOO를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득하다. 앞으로 12기는 지나가겠지만, 선배 기수로서 13기 후배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웹진 MOO가 더 커지고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다 슝

먼저 MOO 오프라인 신문이 잘 마무리 되어서 기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작년에 이어 연임을 한 나로써는 올해가 벌써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이다. 연임까지 하면서 내가 얻고자 한 것은 뭐였을까?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이 아닌 '사람'이었다. 얼마남지 않은 심대에,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할 수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얻게 된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매달 모여서 회의하고 나름대로의 기억을 공유하며 지낸 시간들이 너무도 짧게 느껴진다. 첫 회의때 말했듯이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달리느라 수고했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들 남은 구간도 잘 달려줬으면 한다. 작년 이맘

때쯤 느꼈던 감정을 지금 다시 느끼니 감회가 새롭다. 돌아해보면 후회도 남고 보람도 있었지만 이 모두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시원섭섭하게 좋다.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MOO 12기 기자들과 유정숙선생님! 감사했고 고맙웠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MOO의 세번째 신문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 MOO 12기 기자단과 정숙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김 윤

우선 오프라인 신문 만드는 데 수고한 너무 사랑하는 MOO 12기 기자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1년동안 제가 부편집장이랍시고 한 것도 없이 우리 기자들 더 힘들게 한 것 같은데 모두 항상 웃는 얼굴 잃지 않고 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쌤도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기자단 활동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우리 12기의 유쾌한 해피 바이러스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항상 너무 수고하는 우리 편집장 해림이, 너무 예쁜 지현이, 유리, 진경이, 오프라인 만드느라 너무 수고한 내 사랑 선영이, 귀여운 애기들 유진이, 예진이 서빈이, 예쁜 남자동생 치훈이, 잘생긴 호연이, 마음까지 예쁜 여주, 애교쟁이 다솜이, 광진이, 공부밖에 모르는 준영이까지~ 너무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지려니 매우 슬프습니다. 앞으로도 연락 많이 하고 영원한 친구들이 되는 12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편집장 정 해 림

중학교 3학년 때 떨면서 면접 본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동안 11기가 지나고 지금은 편집장으로서 12기를 보내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다! 12기를 시작할 때만해도 11기 때 처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만 가득했는데 그런 걱정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점점 우리 12기와 함께 할 편집회의만 기다려지고 치진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버렸다. 또 시간이 흘러 벌써 오프라인 신문을 만들 때가 다가 왔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다는 것을 새삼 또 실감한다. 색다르게 바뀐 3호 오프라인 신문을 기대하면서! 모자른 편집장 데리고 고생해 준 우리 12기 14명의 친구들, 동생들 정말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정숙쌤도 정말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나 예 진

moo기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글을 쓰고, 면접을 본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달만 지나면 일년이 된다니,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여덟 달동안 여러 활동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 오프라인 신문 제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때 아니면 제 기사가 또 언제 신문에 나와 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프라인 신문 위해 기사 쓰고, 편집에 또 편집하느라 고민하고 고생한 우리 moo 12기, 편집장 해림언니, 그리고 부편 윤이 언니 결혼할 때 꼭 제가 들러리 서 드릴게요. 항상 신경써 주시는 다솜언니, 서빈언니, 유진 언니, 여주 언니, 유리 언니. 아직은 조금 어색한 치훈이, 노래 잘 하는 광진오빠, 호연오빠, 경제쟁이 준영오빠. 선영언니, 지현언니, 진경언니. 그리고 정숙쌤! 아직은 중학생이다 보니 이런 활동 하게 된 것도 처음이다보니 부족한 점도 정말 많았는데, 정말 많은 도움과 격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12기 4달간 더 열심히 함께 활동해 보아요! 화이팅♥



이 유 리

MOO 친구들과의 어색한 첫 만남이 엇그제만 같은데, 이젠 가족 같은 MOO 식구들과 오프라인 신문을 편집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쉬워요! 함께했던 시간이 즐거웠던만큼 더 빠르게만 느껴지네요. ㅠ.ㅠ 멀게만 느껴졌던 끝이 이렇게나 가까이 다가왔음이 피부로 느껴지는 지금, 누구보다도 가까워진 친구들이 있어 더욱 아쉽고 더욱 행복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과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해준 MOO가 있어 더 많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MOO!! 사랑해요♥

이 진 경

기자단에 지원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 만약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도전했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자단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매달 기사를 쓰면서 기사를 쓰는 방법을 익히고, 상식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과 후배 그리고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함께하기에 행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일깨워준 MOO 12기 친구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정 지 현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moo!!! moo덕분에 일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일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moo와 함께했던 일년은 무엇이었는지 좋았던 것 같아요! 남은 임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12기 기자 정지현이 되겠습니다!

최 유 진

일단,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기사를 쓰고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이 꼭 글을 읽는 사람만이 아닌 나에게도 주옥같은 시간이 되었답니다. 남은 기간동안도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기사 쓰는 기자로 남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2기 사랑합니다당ㅎㅎ♥

박 준 영

다가오는 기사날에 자주 압박받고 시험기간에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것에 비해 제가 받는 것들이 너무 커서 고맙고 과분해요. 기자단을 하면서 기사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치던 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뭔가를 이끌어내게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 광 진

MOO에서 촬영편집기자를 맡아 글을 쓸 일이 많이 없었는데 신문을 만들게 되면서 글도 많이 쓰게 되었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1년간 기자단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도 많았고 아쉬웠던 일도 많았는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남자를 더 뽑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사를 할 때에는 무거운 짐을 들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이 과반수 이상인지라 너무 힘들다. 역으로 생각해서 여자가 많아 좋았던 적도 많았다. MOO는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었다. 만약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다시 지원하고 싶다.